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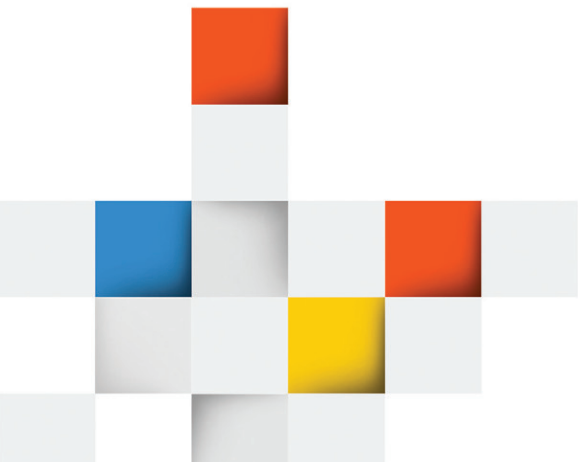


#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16

<http://sri.kostat.go.kr>

2016



통계청

통계개발원

# 1인 청년가구의 소득과 소비

문성만 (전북대학교)

- 1인 청년가구에서 경상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졌으며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졌다.
- 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 흑자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 식료품에 지출하는 비중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지만, 외식비에 지출하는 비중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남녀 모두 외식비지출이 식료품지출보다 많다.
- 식생활 관련 지출 비중은 남녀 모두 낮아지고 있다.
- 의류 및 신발 지출 비중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주거 관련 지출 비중은 과거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나 최근에는 그 반대이다.

이 글은 이러한 세대 간 차이를 고려하여 가구 주 연령이 25-39세인 1인 청년가구<sup>1)</sup>의 소득과 소비 활동을 살펴본다. 분석을 위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기간은 「가계동향조사」가 전국 1인가구로 조사대상을 확대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이다. 서로 다른 시점에서의 소득과 소비의 비교를 위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명목변수를 실질변수로 변환하였다.

## 1인 청년가구의 규모와 특성

1인 청년가구는 2015년 현재 약 65만 5,000가구이다. 통계청이 1인가구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6년과 비교하면 29.8% 증가하였다(그림 VI-25). 반면, 이 기간 동안 2인 이상 가구원으로 구성된 청년가구는 약 21.1% 정도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청년인구가 감소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변화는 청년층의 만혼과 비혼의 급속한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 추세는 결혼 적령기에 있는 청년들이 결혼을 통해 2인 이상의 가구를 형성하는 대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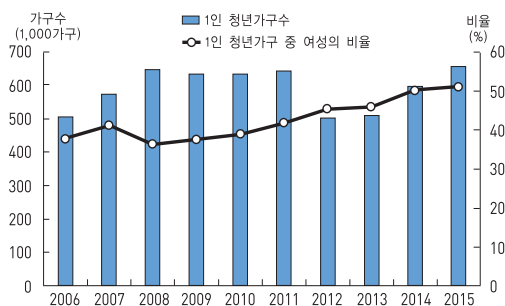
지난 20여 년 동안 1인가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이 추세는 모든 연령층에서 진행되어 왔지만 그 원인과 사회경제적 영향은 세대별로 다르다. 예를 들어,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5-39세 청년층 1인가구 중 약 88.5%가 미혼 가구이지만 60세 이상 노년층 1인가구의 경우 약 79.4%가 사별 가구이다. 1인 청년가구의 소득은 1인 노년가구의 소득보다 매우 높다. 소득 원천도 청년가구는 근로소득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노년가구는 이전소득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1) 이 글에서는 25-39세 인구를 청년층으로 정의하였다.

독신으로 남아서 1인 가구를 형성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은 1인 청년가구의 증가는 주로 1인 여성 청년가구의 증가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2006-2015년 기간 동안 1인 남성 청년가구는 거의 변동이 없는 반면 1인 여성 청년가구는 75.9% 증가하였다. 1인 청년가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37.7%에서 2014년 50.0%로 높아졌고 2015년에는 51.1%로 여성가구가 남성가구보다 많아졌다.

[그림 VI-25] 1인 청년가구 수와 여성 비율, 2006-2015



주: 1) 1인 청년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25-39세인 1인 가구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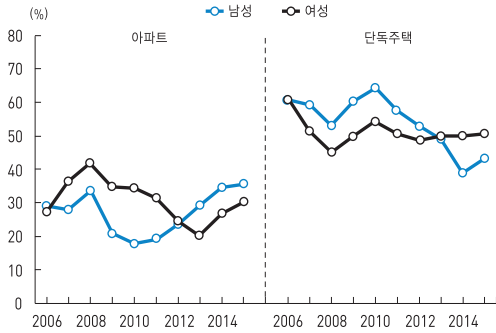
지난 10년간 1인 여성 청년가구의 급속한 증가는 결혼 적령기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관련이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5-39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6년 59.9%에서 2015년 62.9%로 높아졌다. 특히, 25-29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같은 기간 67.5%에서 2015년 72.9%로 상승하였다.

경제적으로 독립한 1인 청년가구의 교육수준은 지난 10년간 높아졌다. 2006년에는 1인 여성 청년가구 중 59.3%가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졌지만 2015년에는 그 비율이 80.4%에 달한다. 남성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지만 고학력자의 비율은 여성이 더 높다. 1인 여성 청년가구 대다수는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2006년에는 1인 여성 청년가구 중 86.0%가 도시지역에 거주하였지만, 2015년에는 95.3%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남성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지만 여성의 도시 거주율이 남성보다 더 높다.

학력수준이 높고 대부분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1인 청년가구는 주로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살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거주했던 청년들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으로 거처를 바꾸는 경향이 지난 10년간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2006년에 1인 청년가구의 88.9%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하였는데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4년에는 75.4%만이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2015년에는 이 비율이 80.0%로 다시 상승하였다.

1인 남성 청년가구의 아파트 거주는 2008년부터 감소하여 2010년에 저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1인 여성 청년가구의 아파트 거주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2년간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 10년간 평균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단독주택에 더 많이 거주하였지만 최근 2년간 이 현상이 역전되었다(그림 VI-26).

[그림 VI-26] 1인 청년가구 가구주의 성별 아파트 및 단독주택 거주 비율, 2006-2015



주: 1) 1인 청년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25-39세인 1인 가구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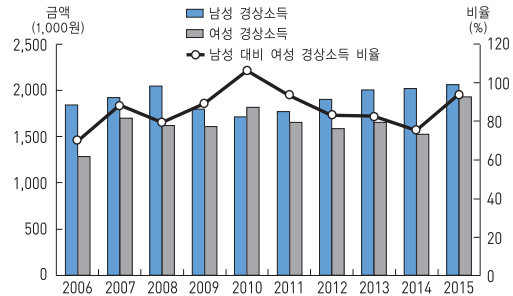
지난 10년간 1인 청년가구의 입주형태 구성에도 변화가 있었다. 2006년과 2015년 사이에 남성과 여성 모두 자기 집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예를 들어, 2006년에 1인 남성 청년가구 중 11.9%가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2015년에는 이 비중이 22.7%로 상승하였다. 반면, 월세 비중은 남녀 모두 낮아졌다. 2006년에 1인 여성 청년가구 중 40.9%가 월세 형태로 거주하였는데, 2015년에는 이 비중이 29.6%로 하락하였다. 남성가구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한편, 지난 10년간 전세로 사는 남성가구와 여성가구는 감소와 증가를 반복해 왔다.

## 1인 청년가구의 소득

가구의 경제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득은 비교적 예측이 가능하고 정기적으로 발

생하는 정상소득과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비정상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통 정상소득이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글에서는 1인 청년가구의 정상소득의 변화와 그 원천에 대해 살펴본다. 지난 10년간 1인 여성 청년가구의 정상소득 수준은 2010년 한해를 제외하고는 남성에 비해 낮았다. 평균적으로 여성 소득은 남성의 약 86% 수준이다(그림 VI-27). 이는 통상적으로 알려진 여성과 남성의 소득격차보다는 적은 편인데, 상대적으로 1인 여성 청년가구의 높은 교육수준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림 VI-27] 성별 1인 청년가구의 실질 정상소득, 2006-2015



주: 1) 1인 청년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25-39세인 1인 가구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정상소득의 원천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재산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상소득에서 근로소득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지난 10년간 가구소득 구성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1인 남성 청년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 비중은 2006년 87.3%에서 2015년 75.0%로 하락하였다. 이 추세는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의 비중이 낮았던 여성가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1인 여성 청년가구의 근로소득 비중은 2006년 74.6%에서 2015년 71.3%로 낮아졌다. 반대로 사업소득이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1인 남성 청년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사업소득 비중은 2006년 6.8%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18.9%로 높아졌다. 1인 여성 청년가구의 사업소득 비중도 2006년 10.5%에서 2015년 21.9%로 상승하였다(그림 VI-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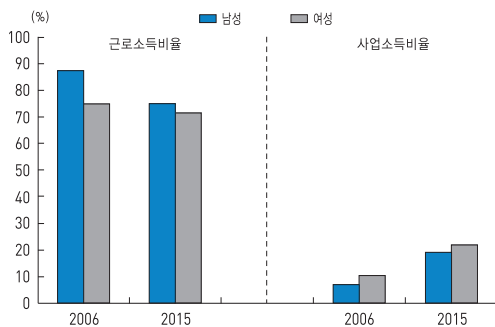
남성과 여성 청년가구 모두 근로소득 비중이 낮아지고 사업소득 비중이 높아진 것은 기업들의 청년고용이 감소한 것과 관련이 있다. 즉, 기업들의 청년고용 감소가 청년창업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1인 남성 청년가구 중 자영업 종사자의 비율은 2006년 7.4%였는데 2015년에는

12.2%로 상승하였다. 여성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1인 청년가구의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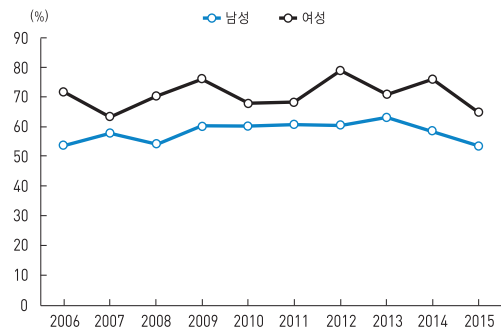
다음으로 1인 청년가구의 소비성향과 소비패턴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가계의 지출은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구분할 수 있다. 소비지출은 의식주 등 생계와 관련된 지출과 교통 및 통신, 오락 및 문화, 교육 등과 관련된 지출을 포함한다. 비소비지출은 조세, 연금 및 사회보장, 이전지출 등을 포함한다. 지난 10년간 1인 여성 청년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이 남성보다 일관되게 높다. 평균적으로 1인 여성 청년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은 70.8%이지만 1인 남성 청년가구의 소비지출 비중은 58.2%에 불과하다(그림 VI-29). 이는 소득이 같더라도 여

[그림 VI-28] 성별 1인 청년가구의 경상소득구성, 2006, 2015



주: 1) 1인 청년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25-39세인 1인 가구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VI-29] 성별 1인 청년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 2006-2015



주: 1) 1인 청년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25-39세인 1인 가구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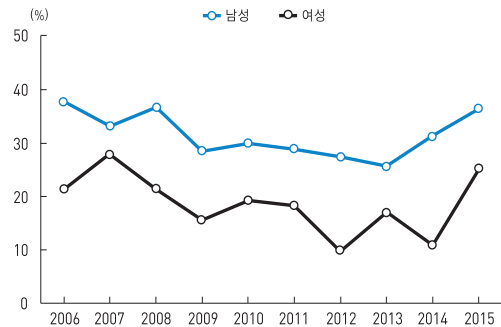
소득수준을 통제하지 않은 절대 지출액을 비교하더라도 1인 여성 청년가구의 소비지출이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높다. 2015년 기준 여성 1인 청년가구의 소비지출은 약 125만 원인데 남성의 소비지출은 약 110만 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15만 원을 더 지출한다. 이러한 추세는 연령별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결혼 적령기인 25-29세 혹은 30-34세의 여성은 같은 연령의 남성보다 모든 연도에서 소비지출 비중이 높다. 35-39세 여성 또한 같은 연령대의 남성보다 거의 모든 연도에서 소비지출 비중이 높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소비지출 성향이 낫다는 기존의 통념과 배치된다.

소비지출 비중과 달리 비소비지출 비중은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높다. 평균적으로 1인 남성 청년가구의 비소비지출 비중은 17.2%이고 여성의 비소비지출 비중은 15.7%이다. 이는 비소비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조세와 연금이 소득에 비례해서 부과되기 때문이다. 즉, 남성의 비소비지출 비중이 여성보다 높은 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구의 지출이 소득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저축하거나 금융자산이나 비금융자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통계청의 「통계표준용어」에 따르면, 가계흑자율은 가계의 총 소득에서 소비지출액과 비소비지출액을 뺀 금액을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총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금액)

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지난 10년간 줄곧 1인 남성 청년가구의 흑자율은 여성 청년가구보다 훨씬 높다. 2015년 기준 1인 남성 청년가구의 흑자율은 36.4%인데 여성 청년가구의 흑자율은 25.3%에 불과하다(그림 VI-30).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경향과 부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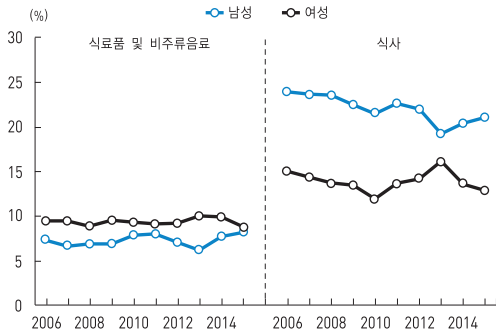
[그림 VI-30] 성별 1인 청년가구의 가계흑자율, 2006-2015



주: 1) 1인 청년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25-39세인 1인 가구임.  
2) 가계흑자율은 가계소득에서 가계지출을 뺀 금액을 가계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값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1인 청년가구의 항목별 소비지출 패턴을 살펴보자. 가구원의 식생활과 관련된 지출항목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와 식사 등이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지출은 가정에서 음식 장만을 위한 재료의 지출을 포함하며, 식사지출은 식당음식과 배달음식 등을 포함한 외식비와 단체식비를 포함한다. 먼저, 지난 10년간 소비지출 대비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지출 비중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반면, 식사지출 비중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그림 VI-31).

[그림 VI-31] 성별 1인 청년가구의 식생활 관련 지출 비율, 2006-2015



주: 1) 1인 청년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25-39세인 1인 가구임.  
 2) 지출 비율은 소비지출 중 해당 지출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이러한 추세는 남성의 외식 의존도가 여성보다 높다는 통념과 일치한다. 한편, 남성과 여성 모두 식사지출 비중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지출 비중보다 훨씬 높다. 지난 10년간 평균적으로 남성은 약 3배 정도 외식에 더 많이 지출하였고 여성은 약 1.5배 정도 외식에 더 많이 지출하였다. 이는 근로활동을 하는 1인 가구의 가정식 생산의 기회비용이 외식비보다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소비지출 대비 식료품, 비주류음료, 식사 지출 총합의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남성의 경우 2006년에 이 비중이 31.3%였으나 2015년에는 29.3%로 낮아졌다. 여성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24.5%에서 21.6%로 낮아졌다. 이 추세는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지출 대비 식생활과 관련된 지출의 비중이 낮아진다고 예측하는 엥겔의 법칙에 부합된다. 그러나 상

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이 여성보다 식생활 관련 지출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고유한 특성이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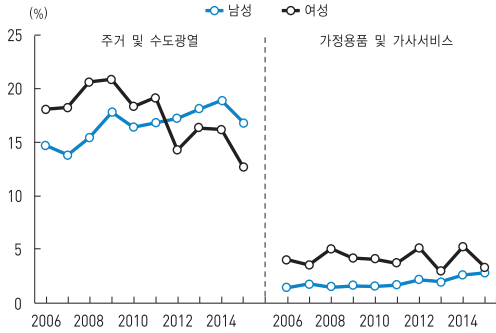
1인 청년가구의 의류 및 신발 관련 지출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지난 10년간 여성의 의류 및 신발지출 비중은 남성보다 꾸준히 높다. 2015년 기준으로 이 비중은 여성 9.5%, 남성 6.3%이다. 이는 여성이 외모에 영향을 미치는 의류 및 신발에 남성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한다는 기존의 통념에 부합된다.

가구의 주거생활과 관련된 지출은 주거 및 수도광열과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를 포함한다. 주거 및 수도광열 지출은 실제 주거비, 연료비, 주택유지 및 수선 비용 등을 포함한다.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지출은 가구 및 조명, 가전 및 가정용기기, 가사용품, 가사서비스 지출 등을 포함한다. 1인 청년가구의 소비지출 대비 주거 및 수도광열 지출 비중은 2006-2011년에는 줄곧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나 2012-2015년에는 오히려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구체적으로 2006년에는 여성의 소비지출 대비 주거 및 수도광열 지출 비중이 18.0%이고 남성은 14.7%였다. 하지만 2015년에는 여성의 경우 12.7%로 낮아졌고 남성의 경우에는 16.7%로 높아졌다(그림 VI-32).

이는 남성들의 집에 머무는 시간의 증가와 주거공간 사용면적의 증가로 주거 및 수도광열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실제 주거비와 연료비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일 수 있다. 2006-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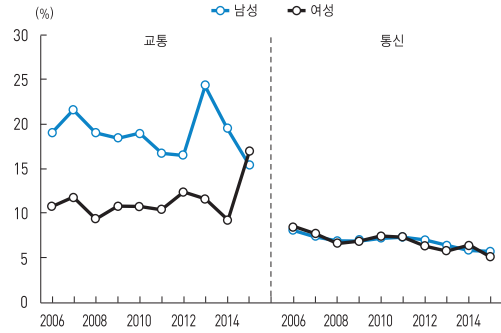


[그림 VI-32] 성별 1인 청년가구의 주거생활 관련 지출 비율, 2006-2015



주: 1) 1인 청년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25-39세인 1인 가구임.  
 2) 지출 비율은 소비지출 중 해당 지출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VI-33] 성별 1인 청년가구의 교통 및 통신 관련 지출 비율, 2006-2015



주: 1) 1인 청년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25-39세인 1인 가구임.  
 2) 지출 비율은 소비지출 중 해당 지출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에는 1인 남성 청년가구의 주거공간 평균 사용면적은 42.0㎡이고 여성가구의 평균 사용면적은 43.9㎡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넓게 사용하였다. 하지만, 2012-2015년에는 남성가구의 평균 사용면적은 47.8㎡이고 여성가구의 평균 사용면적은 45.1㎡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한다.

소비지출 대비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지출 비중은 5% 내외로 낮은 가운데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그림 VI-32). 이는 여성이 가구나 실내장식, 주방기구 등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들 항목에 남자보다 더 많이 지출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가구원의 근로활동과 여가활동에 필수적인 교통 및 통신 관련 지출을 살펴보자. 교통지출은 자동차 구입비, 운송기구 유지 및 수리 비용, 운송기구 연료비, 철도운송비, 육상운송비, 항공요

금 등을 포함한다. 통신지출은 일반전화기 및 이동전화기 구입비, 통신요금 등을 포함한다. 1인 청년가구의 소비지출 대비 교통지출 비중은 2015년을 제외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높다. 2006년에 남성의 교통지출 비중은 19.1%이고 여성의 교통지출 비중은 10.8%에 불과하였다(그림 VI-33).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자동차 구입을 많이 한 것과 관련이 있다. 즉, 구입한 차량의 유지와 보수, 연료비 등에 대한 지출이 여성보다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6년에 1인 남성 청년가구는 약 0.54대의 자동차를 보유하였으나 1인 여성 청년가구는 약 0.12대를 보유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15년에는 남성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약 0.50대로 오히려 약간 감소하였는데 여성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약 0.29대로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5년 여성의 교통지출 비중이 남성보다 높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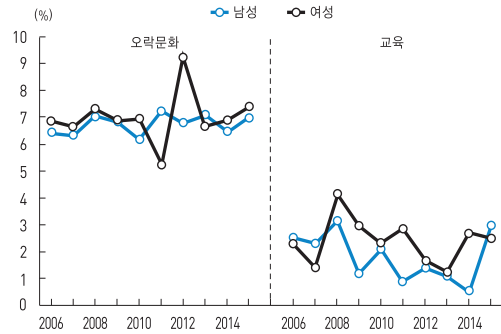


이유는 여성의 신차구입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소비지출 대비 통신지출 비중은 지난 10년간 줄곧 남성과 여성 모두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그림 VII-33). 이는 통신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동전화기와 통신서비스에 대한 지출패턴에 남녀 간 차이가 없음을 뜻한다. 아울러 지난 10년간 통신지출 비중은 꾸준히 낮아졌다. 이러한 추세는 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이동전화기에 대한 지출이 줄어든 것과 관련이 있다.

오락문화지출은 가구원의 여가활동과 관련이 있으며, 교육지출은 가구원의 인적자본 투자와 관련이 있다. 오락문화지출은 영상음향 및 정보기기, 오락문화 내구재, 장난감 및 취미용품, 화훼 및 애완동물 관련용품 및 서비스, 운동 및 오락서비스, 문화서비스, 서적 등의 지출을 포함한다. 교육은 정규교육, 학원 및 보습교육, 기타교육 등의 지출을 포함한다. 1인 청년가구의 소비지출 대비 오락문화지출 비중은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조금 높지만 큰 차이는 없다. 지난 10년간 여성의 오락문화지출 비중은 평균 7.0%이고 남성의 오락문화지출 비중은 평균 6.7%이다. 운동 및 오락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으며, 문화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남성과 여성이 비슷하다. 소비지출 대비 교육지출 비중은 여성이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높다. 그러나 지출액 규모는 크지 않다(그림 VII-34). 이는 교육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정규교육과정을 이미 대다수의 가구주들이 수료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VII-34] 성별 1인 청년가구의 오락문화 및 교육 관련 지출 비율, 2006-2015



주: 1) 1인 청년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25-39세인 1인 가구임.  
2) 지출 비율은 소비지출 중 해당 지출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마지막으로, 위에서 살펴본 항목들 외에, 남성과 여성의 지출패턴에 차이가 뚜렷하게 관찰되는 항목들을 살펴볼 것이다. 소비지출 대비 이 항목들의 비중은 아주 낮지만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위험기피 성향과 관련이 있는 지출로 운송 관련 보험을 제외한 생명보험·화재보험·연금보험 가입, 복권 구입, 택시비 등의 지출이 있는데, 이 중 보험과 택시 관련 지출은 지난 10년간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반면, 복권 구입은 남성이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지난 10년간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10배 이상 복권 구입에 많이 지출하였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위험기피적 소비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기부금은 여성이 남성보다 1.2배 정도 더 많이 지출하지만 가구 간 이전지출은 남성이 여성보다 1.3배 정도 더 많이 지출한다.

주류지출과 담배지출은 남성이 여성보다 꾸준히 많다. 지난 10년간 주류지출은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2배 많고 담배지출도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6.8배나 많다. 남성의 담배지출액은 지난 10년간 점차 감소하다가 2015년에 증가하였다. 여기에는 2015년에 시행된 담배세 인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담배지출액은 2014년 대비 2015년에 감소하였는데, 여성의 담배소비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남성보다 큰 것으로 추론된다. 주류지출액은 남성과 여성 모두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주류지출 대비 담배지출 비율은 남성과 여성 모두 지난 10년간 낮아지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남성은 2006년에 주류보다 담배에 4.5배 많이 지출하였지만 2015년에는 이 비율이 1.2배로 낮아졌다(그림 VI-35). 이는 소비지출 대비 담배지출 비중이 지난 10년간 빠르게 낮아진 반면 소비지출 대비 주류지출 비중은 계속 높아진 것과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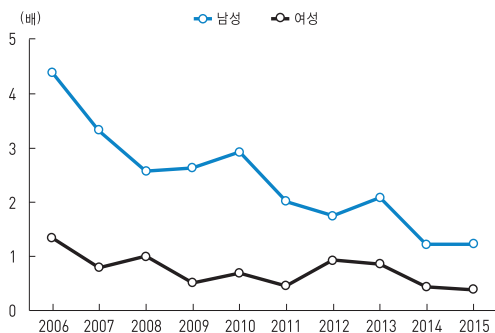
련이 있다. 남성은 지난 10년간 줄곧 주류지출에 비해 담배지출이 많지만, 여성은 2006년을 제외하고는 주류지출이 담배지출보다 많다.

## 맺음말

이 글에서는 25-39세 1인 청년가구의 소득과 소비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성별로 비교하였다. 사회 통념에 반하는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은 여성이 남성보다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이 높으며 가계의 저축률을 반영하는 가계흑자율이 여성이 남성보다 낮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25-39세 연령층은 2인가구와 3인 이상의 다인가구, 독립적인 가구를 형성하지 못한 켄거루가구를 포함한다. 1인가구와 2인가구의 주된 차이는 결혼 여부에 있으며, 2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차이는 자녀 유무에 있다. 특히, 1인가구와 2인가구의 소득과 소비 양상에 대한 비교분석은 최근 늘어나는 청년층의 비혼과 만혼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2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소득과 소비 양상에 대한 비교분석은 최근 늘어나는 무자녀가구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청년층 인구의 감소는 향후 한국의 경제, 정치,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청년층의 소득과 소비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VI-35] 성별 1인 청년가구의 주류지출 대비 담배지출의 비, 2006-2015



주: 1) 1인 청년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25-39세인 1인 가구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